

예술 통해 발견한 삶의 가치들...그림으로의 초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나는 그림을 보며 어른이 되었다

이유리 지음

‘곤충의 아버지’라 일컫는 앙리 파브르보다 훨씬 앞서 곤충을 연구한 이가 있다. 바로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그는 그림도 그렸던 예술가였다. 최초 여성 곤충학자를 넘어 사이언스 아트계의 선구자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과학자와의 절연이었다.

그러나 메리안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18세 때 8살이나 연상인 화가 요한 안드레아스 그라프와 결혼했다. 그라프는 메리안의 계부인 화가 야곱 마렐의 제자였다. 문제는 그라프가 술주정뱅이었다는 사실이다. 별수 없이 메리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날이었지만 메리안은 28세에 동판화 화집 ‘꽃 그림 책’을 출간해 주목을 받았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지만 1679년 나비와 나방 등 186종의 곤충을 기록한 곤충도감 ‘애벌레의 경이로운 변화와 그 특별한 식탁’을 출간했다. 남편의 눈을 의식해 공동으로 작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표지에 ‘사랑하는 요한 안드레아스 그라프의 진철한 도움으로’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얼마 후 메리안은 그마저도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후일 네덜란드판을 출간할 때 ‘그라프’라는 글자가 있는 줄기 위에 나뭇잎을 그려 넣어 남편의 이름을 지운다. “이 30년 사이에 메리안은 드디어 그라프를 자신의 인생에서 도려내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작품을 봤다는 의미다. 그림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작가 이유리는 “그림을 보기 전과 후,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 작가가 이번에 펴낸 ‘나는 그림을 보며 어른이 되었다’는 예술 작품을 보며 깨달은 것에 대한 사유를 담았다. 작가, 기자로도 일한 그는 ‘기울어진 미술관’, ‘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자들’, ‘화가의 마지막 그림’ 등을 펴낸 바 있다.

저자는 “그림은 작가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와 사회, 동료 시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응시하고 있는지 가감 없이 알려주었다”며 “예술가들은 영락없이 그 시대가 낳은 인물이었다. 당대의 공기를 체화한 사회인이기도 했던 셈”이라고 언급했다.

제임스 애벗 맥닐 휘슬러의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 떨어지는 불꽃’에 대한 저자의 단상은 깊고 감성적이다. 작품은 불꽃놀이를 묘사한 것인데, 일반적인 불꽃놀이와는 결이 다르다. 휘슬러는 밤하늘을 물들이는 화려한 불꽃이 아닌 절정이 지난 후의 소멸의 과정을 포착했다.

“잘게 부서진 빛은 마치 하늘에 티를 남기듯 퍼져 있고” 등의 표현은 잔치 끝난 뒤끝의 쓸쓸함과 허무함을 빗댄 것 같다. 저자는 절정을 지난 사라져가는 그 순간이 “사무치게 아름다웠다”고 고백한다. 우리네 삶도 그렇다. 밝고 예쁜 것만이 아닌 슬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삶의 또 다른 가치와 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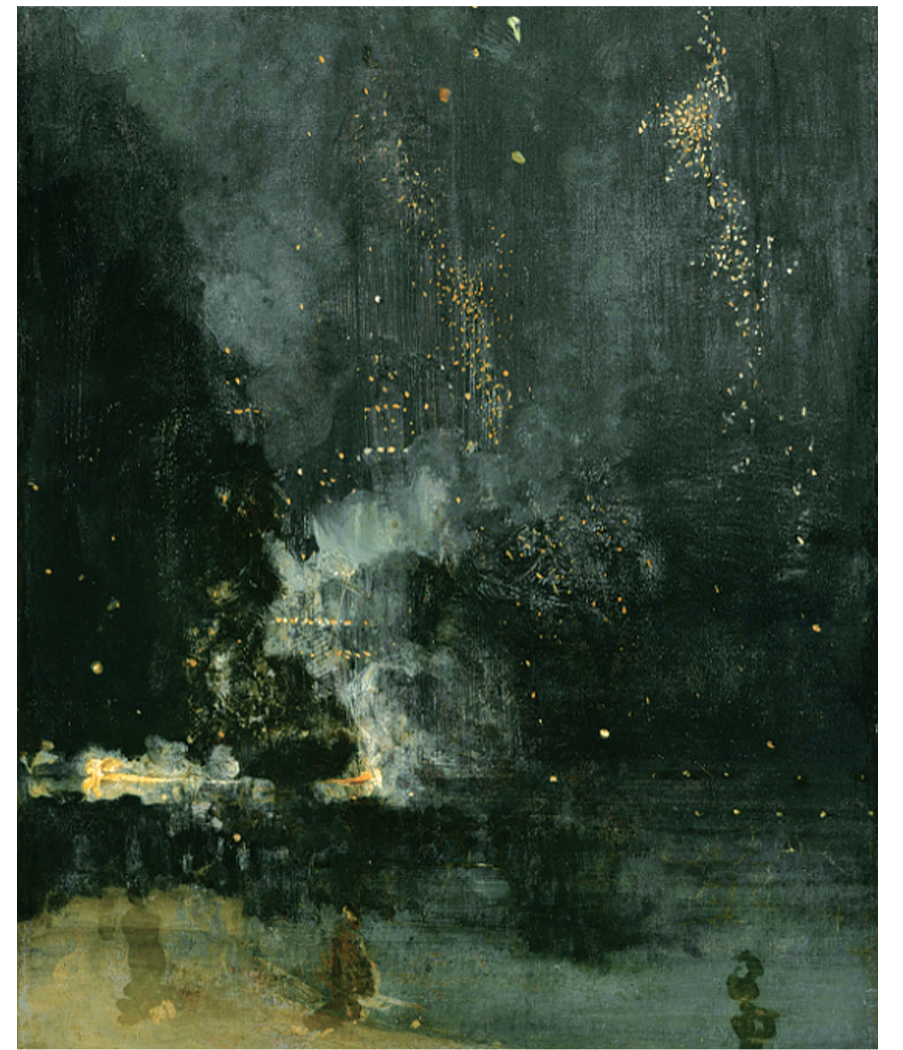
저자의 에드바르 몽크의 그림에 대한 해석도 인상적이다. 대체로 인간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를 간섭당한다고 본다. 과연 그렇까. 저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삶을 멋대로 규정되게끔 놔 두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지옥에서의 자화상’은 지옥에서도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몽크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그림자는 또 다른 존재다. 즉 ‘내면 아이’다. 몽크의 유년은 병약했으며 어머니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자신을 돌봐주던 누이이자 ‘제2의 어머니’ 소리마저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에 마냥 머무르기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신의 길을 간다.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해 그림을 그리며 슬픔과 분노, 우울에 맞섰다.

저자는 이렇게 되뇌인다. “맑은 말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며 ‘내면 아이’의 이혼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 ‘단단한 어른’으로 맞서야 한다고.

이밖에 책에는 ‘제임스 앤소르를 통해 본 인간의 위선과 가면’, ‘페릭스 발로통과 삶의 예측불가능성’, ‘에밀 놀데의 삶을 통해 본 중립의 함정’ 등에 대한 사유와 글을 만날 수 있다.

〈수서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임스 애벗 맥닐 휘슬러 작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 떨어지는 불꽃’

당신이란 페이지를 넘기는 중입니다

박정현 지음

영양 출신 박정현 시인이 첫 시집 ‘당신이란 페이지를 넘기는 중입니다’를 펴냈다.

지난 2019년 ‘불교와문학’으로 등단해 지지인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의 초기 작품 세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작품집이다.

시집에서는 기억과 체험이 직조된 서정적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늘의 시대, 메마르고 각박한 현실을 견뎌야 하는 현대인들의 삶과 정서를 포착한다.

“너는 이미 다녀갔는데/ 다녀가겠다는 염서가 이제야 당도했다// 파사석탑과 아우타국 공주/ 합장하고 있는 380W 우표가 붙어 있었다// 선남 일반통상 \$50은 바람산의 노여움을/ 기어어 뚫겠다는 의지의 속도?// 다녀간 후 다 녀겨간다는 소식으로/ 너에게 달고 싶어졌다// 내가 앞질러버릴 너의 다음 염서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위 시 ‘염서의 속도’는 심리적인 속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투영돼 있다. 사람보다 늦게 도착한 염서는 어쩌면 다음의 방문에 대한 예고인지 모른다.

‘염서의 속도’가 생각의 속도, 마음의 속도를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삶에 드리워진 다양한 속도의 개념을 만남과 헤어하는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형철 시인은 박정현 시인의 작품에 대해 “그의 시는 심미적 감식안을 통해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재론적 원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환기시킨다”고 평한다.

한편 박 시인은 지난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기금을 수혜 받았다.

〈상상인·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만 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

박완서 지음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박완서 작가의 타계 14주기를 기념한 산문집 ‘다만 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이 출간됐다. 남한산성, 강릉 등 국내는 물론 티베트, 에티오피아 등 미지의 해외, 개성과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생전에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남긴 생생한 여행기를 담았다.

2005년 발간됐던 ‘잃어버린 여행가방’ (실천문학사)을 재편집하고 여기에 미수록 원고 다섯 편을 추가했다.

서문에는 어머니 박완서 곁에서 늘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던 딸 호원숙 작가의 ‘엄마의 여행 가방’이 수록됐다. ‘이 책의 표지에도 꾸러진 어머니의 여행 가방에는 아직도 빨간 크리스마스 리본이 달려 있다. 평범한 캐리어지만 그걸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 미소가 나온다. 어머니가 어딘가에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쓰신 게 떠올라 웃음이 나기도 한다. 그런 것치고 어머니는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기에...’

1부 ‘꿈처럼 독창적인 것’에는 호원숙 작가가 우연히 발견한 4편의 미출간 원고 ‘겨울나무 같은 사람이 되자, 삶의 불을 만들자’, ‘내 나름으로 누리는 기쁨’, ‘어린 시절, 7월의 뽕자’, ‘미망(未忘)에서 비롯된 것들’을 포함해 다섯 편의 글이 수록돼 있다.

2부 ‘선하고 관대한 평화’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국과 몽골 등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동아시아 여행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한다. 작가의 또 다른 미출간 원고인 ‘천지, 소천지, 그리고 어랑촌 가는 길-백두산 기행’은 백두산 천지에 다다르며 목도한 장엄한 풍경을 작가 고유의 천상적인 표현력으로 그려냈다.

3부 ‘왜 인간이라고 묻는 것’에는 티베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티베트, 네팔 등 좀 더 멀고 낯선 이국땅을 체험함으로써 인간과 신, 종교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사유하게 한다.



〈문학동네·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미스터 사이언스

한성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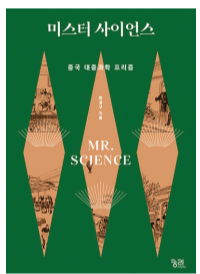
공맹의 나라로 불려 온 중국은 수천 년간 과학보다 인문학에 역점을 두고 국가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서양에서 건너온 과학은 ‘미스터 사이언스(費先生)’라고 불리며 순식간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서 중국은 자신들이 쌓아온 철학, 사유주의의 맥락을 벗어 던지고 과학의 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와 중국 베이징대(철학과)에서 중국 근현대철학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한성구 작가가 최근 ‘미스터 사이언스’를 펴냈다. 격치에서 대중과학으로 발전해 온 중국의 근현대 과학사 변천사를 개괄하는 책이다.

책은 동아시아에 ‘과학’이 진정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 서양의 태엽 시계와 중국의 시간 경험 등 동서양의 과학사를 거시적으로 조망한다. 청말 과학 영재 학교나 격치서원, 중국의 근대 조기구학 프로젝트 등 대중과학 탄생에 일조했던 프로젝트를 살펴 보며 중국에 과학적 진리가 뿌리 내린 과정을 고찰한다.

중국은 중국 고유의 철학에 과학이라는 새로운 진리를 녹여내는 ‘두 개의 진리’를 고수했고, 그 결과 한의와 양의 논쟁, 이데올로기와 과학의 충돌 등 다양한 문제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중국은 과학을 통한 교육개혁을 일궈내고 정치지도자와 과학자들의 소양을 모두 부각시키며 근대화된 나라로 나아갔다.

저자는 중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적은 이유, 중화풍 특색이 가미된 과학기술 혁명, 중국식으로 수용한 맨해튼 프로젝트나 중관춘 등 사례를 언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맞물려 발생했던 정치 동란이 과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사회주의에 종속된 과학의 비합리성에 대해서도 역설한다.



〈공리·3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